

## - 사생결단 기도회 아홉째 날 - 성령충만이란? 두 번째 시간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18)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의 크리스천들이 관념 상으로는 성령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성령께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 인격적인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연 내가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는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여 주님께 대한 복종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현재는 충만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새롭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은 인격을 지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 원하십니다.

- 배본철,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인가?”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5138>)

1. 성령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성령 충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인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극적인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말, 행동, 습관, 문화등의 총체적인 요소들까지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성령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완성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왕,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기 위한 완성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결국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 완성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성령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3. 그런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죄인된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된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서 성령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A. 이 질문은 창조 시,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죄를 지을 위험이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기계적인 창조”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죄인된 상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고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임하신다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만한 자원적, 자발적, 순종적 자세와 그로 인한 열매를 전혀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43-45)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1-22)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5)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배척했다면, 교회시대의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 존 오웬 (인용: 박영돈,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1.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는 것은,

- a.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 b.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들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
- c.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으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
- d. 율법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

B.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리해 주지 않으십니다. 창조 시의 완성된 원리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도리어 존중하십니다. 도리어, 죄를 **이기게** 하시면서, 본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3-4)

C.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성령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시며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

우리라는 존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 성령하나님의 극적인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그 분만을 인정하고 그 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변화의 계기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령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 우리의 타락한 존재가 성령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형상으로의 회복이 성령하나님의 임재와 내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셈입니다.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24)